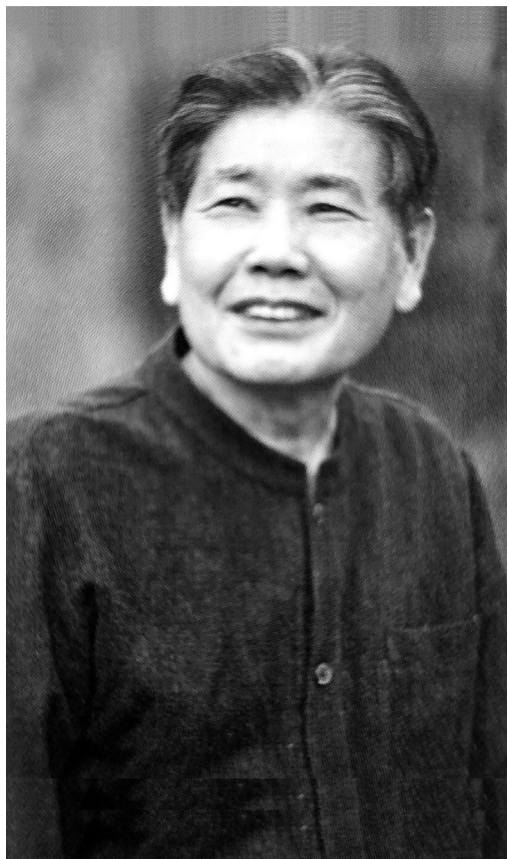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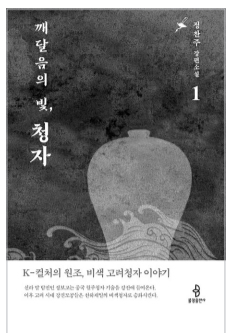


“K-컬처 원조는 비색의 고려청자”

보성 출신 정찬주 작가
강진청자 모티브 장편소설
‘깨달음의 빛, 청자’ 펴내
전라도 토속어 해학 백미



정찬주 소설가

흔히 K-컬처하면 대중문화를 생각하기 쉽다. 가요, 영화, 드라마 등의 파급력과 확장력이 그만큼 크다는 방증이다.

그러나 K-컬처가 대중문화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고유한 역사 속에 깃든 K-컬처가 있는데, 보성 출신 정찬주 소설가는 ‘고려청자’를 K-컬처의 원조라고 본다. 신비한 비색이 감도는 고려청자는 고려를 넘어 세계인의 미적 감수성을 사로잡았다는 것이다.

얼마 전 산문집 ‘마지막 스승 법정스님’을 펴냈던 정 작가가 고려청자를 모티브로 한 장편소설을 펴냈다. 2권으로 발간된 ‘깨달음의 빛, 청자’ (불광출판사)는 1천년 전 탄생한 강진의 비색청자의 흥망성쇠를 서사화했다.

산문집 ‘마지막 스승 법정스님’이 출간된 지 얼마 되지 않은 터라, 작가와의 통화는 일상의 대화처럼 느껴졌다. “오랜 기간 준비했던 소설”이라는 첫 마디에서 ‘천상 소설가이구나’라는 생각을 잠시 했다. 그는 지난 2002년 화순 계당산 자락에 산방 이불재를 짓고 매년 정진하듯 작품을 써내고 있다.

정 작가는 “10여 년 전 다산 정약용의 유배를 모티브로 한 소설 ‘다산의 사랑’을 쓰면서 강진을 곧잘 오고갔는데 그때 자연스럽게 강진청자의 역사를 접했다”며 “당시 강진청자야말로 K-컬처의 원

조이자 한류의 시초라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K-컬처의 원조이자 한류의 시초”라는 것은 중국 남송의 선비 태평노인의 ‘수중금’(袖中鱗)이라는 책에서도 찾을 수 있다며 “수중금”의 ‘천하제일’ 편에는 청자는 고려비색, 비류는 단계의 비루, 백자는 정요의 백자 등을 꼽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책은 작가가 강진군 홈페이지에 연재한 ‘깨달음의 빛, 청자’를 엮은 것이다. 당시 시대 배경은 물론 청자의 흥망성쇠 등을 강진, 탐진 등을 중심으로 역동적으로 풀어냈다.

그는 “소설은 신라 말기부터 고려시대까지를 아

우르고 있는데 1권은 당나라 월주청자 기술을 탐진으로 가져온 ‘청자의 대부’ 장보고가 주인공”이며 “2권은 이름 없는 도공들이 만든 다채로운 청자들이”고 밝혔다.

1권에서는 장보고가 월주청자 기술을 탐진으로 가져오기까지의 과정, 이후 신라에 돌아와 청해진을 설치하는 일련의 서사가 드라마틱하게 전개된다.

2권에서는 고려 도공들의 청자가 최씨 무신 집권기 통치자금과 연계돼 수요가 늘게 된 사연 등을 다룬다. 또한 탐진도공들이 청자상감항아리 등을 비롯해 청자문화를 꽃 피우게 된 내력 등도 담고 있다.

작가는 이번 소설을 쓰는 동안 가끔씩 강진 장터 등에 나가 지역 향토 방언을 수집했다. 작품 속에 녹여낸 지역말들은 하나하나 음미해 보면 정겹기 그지없고 감칠맛을 느낄 수 있다.

작가가 하나의 사례로 든 ‘자때바때하다’는 ‘쉽게 응하지 않다’라는 뜻을 지닌 지역 토속어다. 또한 ‘구중하다’의 토속어인 ‘머락하다’, ‘모질다’의 의미를 담은 ‘모지락시롭다’, ‘자긔자긔하다’를 뜻하는 ‘송신나다’라는 방언은 소설을 읽는 맛을 더해준다.

이경철 문학평론가는 “불이 불을 태워야만 한다는 대목에서 우리민족 고유의 단련법을 떠오르게 한다”며 “선악(善惡)의 이분법에 갇힌 자신을 태워야만이 진정한 깨우침과 두루 어우러지는 대동세상을 열 수 있다는, 저 산동반도를 거쳐 해 뜨는 곳을 향해 내려온 해의 족속인 우리 민족 고유의 혼이 청자를 낳았다는 것을 작품 곳곳에서 드러내고 있다”고 평한다.

한편 정 작가는 1983년 ‘한국문학’ 신인상으로 등단했으며 장편 ‘아소가대왕’, ‘산은 산 물은 물’, ‘소설 무소유’, ‘이순신의 7년’ 등을 펴냈다. 센터 사제직 시절 법정스님의 책을 만들면서 스님의 각별한 제자가 됐고 ‘세속에 있되 물들지 말라’는 뜻의 ‘무염’(無染)이라는 별명을 받았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전북 창작 국악, 구성진 가락 속으로

국립남도국악원 ‘여울빛 콘서트’ 다음달 11일 진악당



전주시립국악단 소리꾼들이 공연을 펼치는 모습. <국립남도국악원 제공>

남도에서 듣는 전북의 창작 국악 레퍼토리. 구성진 성음이 선사하는 ‘전통’의 카타르시스.

국립남도국악원(이하 국악원)이 토요상설 국악이 좋다 일환으로 ‘여울빛 콘서트’를 오는 5월 11일 오후 3시 국악원 진악당에서 펼친다. 이번 공연은 전주시립국악단을 초청해 창작 음악 레퍼토리 등을 듣는 자리다.

서울대 음대 및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전주시립국악단 예술감독(겸 지휘자)을 맡고 있는 심상욱, 소리꾼 허정승이 출연한다. 이 밖에도 제23회 전국농악경연대회에서 대통령상을 받은 박종석(설장구), 전주시립국악단 수석단원 조승희(소아쟁) 등이 관객들을 만날 예정이다.

막을 여는 작품은 전주 지역을 모티브로 창작한 곡 ‘스포트라이트 전주’와 ‘전주다움’. 관현악 소품곡으로 이뤄져 있으며 작곡은 임교민·박경훈이 맡았다. 이어 소아쟁 협주곡 ‘두엔데’가 울려 퍼진다. 스페인어 ‘두엔데(Duende)’는 우리말로 춤을 추거나 음악을 연주하며 무아지경에 다다른 것을 의미한다. 집시의 애환과 정열을 담아낸 플

라멩코 리듬, 구조를 우리 정서에 맞게 접목해 아쟁 협주곡으로 표현하는 곡.

각 지역 특징을 살린 우리나라 대표 민요를 모아 만든 ‘관현악 민요의 향연’도 관객들을 만난다. 세 마디장단의 밀양아리랑, 진도아리랑, 종모리장단 메나리조인 상주아리랑, 경기계 아리랑 등을 현대적 감각으로 묶어 냈다.

‘소리꾼 허정승이 들려주는 적벽의 노래’ 파트에서는 ‘사철가’, 적벽가 중 화룡도 ‘조자룡 활 쏘는 대목’이 울려 퍼진다. 이어지는 설장구 협주곡 ‘갈’은 풍가, 갈라베 등 이국적 악기를 결합한 남미풍의 창작곡이다.

국악원 정순영 주무관은 “정악, 민속악, 창작국악관현악 등을 총망라해 공연을 펼치고 있는 전주시립국악단을 초청하게 됐다”며 “전통을 계승하고 현대를 아우르는 창작 음악 등이 관객들에게 전통의 신명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무료 공연. (진도읍사무소, 오산초 등에서 국악원까지 셔틀버스 운행)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저자와 함께 서원에서 읽는 책 한 권’

‘광산, 서원아카데미’ 5월2일~8월31일 월봉서원서 강좌

서원은 우리 선조들의 정신문화와 아름다운 풍광이 어우러진 소중한 문화유산이다. 어떤 이들은 서원을 일컬어 ‘오래된 미래’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만큼 고유한 가치들이 응결돼 있어 다양한 콘텐트 초화가 가능한 곳이기도 하다.

‘광산, 서원아카데미’가 오는 5월 2일부터 8월 31일까지 월봉서원에서 강좌를 연다. (선착순 40명, 접수 문의 호남학당) ‘저자와 함께 서원에서 읽는 책 한 권’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강좌는 일상에서의 삶의 깊이 등을 사유해보는 시간이다.

먼저 첫 강의(5월 2일)는 김학권 원광대 명예교수가 ‘김학권 교수의 주역산책, 주역이야기’를 주

제로 강연을 한다.

5월 9일은 류시현 광주교육대 사회과교육과 교수가 ‘동경삼재를 아시나요?-홍명희, 최남선, 이광수의 삶을 만나다’를 주제로 시민들을 만난다.

이어 5월 16일에는 박원재 울곡연구원장의 ‘장자 두렵게 읽기-소요유를 감하다’가 예정돼 있다.

노사학파에 대한 강연을 들을 수 있는 시간도 있다. 5월 23일은 조우진 전남대 학술연구교수가 ‘노사학파와 화순의 유학자들 만나다’를 주제로 강좌를 펼친다.

김영옥 전 가산불교연구원 원장은 ‘화두, 간화선 이

야기(5월 30일)’로 시민들을 만나고, 김경호 전남대 호남학과 교수는 ‘하서 김인후의 감성유학을 만나다’ (6월 13일)를 주제로 강연을 할 예정이다.

답사도 예정돼 있다. 6월 29일에는 ‘고봉선생과 함께하는 ‘영산강 물길 투어’를 진행한다. (선착순 25명, 점심제공, 참가비 2만원) 강좌는 모두 두 차례 예정돼 있다.

먼저 강회1(6월 8일)은 ‘논사육을 새기다’를 주제로 조강이 열리고, 주강에는 빙월당 음악회 ‘동락’이 펼쳐진다. 강회2(8월 31일)는 조강시간에 ‘논사육을 새기다’가 진행되며 주강에는 빙월당 음악회 ‘동락’이 이어진다.

백옥연 광산구문화기획팀 전문위원은 “서원을 매개로 우리 조상들의 빛나는 정신문화와 심오한 학문의 세계 등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고 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 중장년 ‘청춘문화공간 1교시’

한국문화예술위 5월 16일 중장년 청춘문화공간서

인생 이모작과 도약을 꿈꾸는 ‘중장년층’을 위한 인문·여가문화 프로그램이 펼쳐질 예정이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예술위)는 오는 5월 31일 까지 전국 15개 지역에서 ‘중장년 청춘문화공간 1교시’ 프로그램을 총 19회 운영한다고 밝혔다. 광주, 인천, 부산, 대구 등지에서 진행하며 ‘청춘문화특강’과 ‘일상 에세이’로 나뉘어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특강은 중장년층 세대 인문활동을 신장하고, 여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된다. 전국적으로 열리는 청춘문화특강은 김용택 시인, 정여울 작가, 이현주 상담사 등이 강연자로 출연해 중장년의 글쓰기에 대해 알려주는 프로그램이다. (자세한 일정은 누리집 참조)

행사 일환으로 광주시는 5월 16일 오전 10시-

오후 3시 광주 중장년 청춘문화공간(북구 금남로 136, 4층)에서 ‘일상 에세이 클래스’라는 주제로 강의를 연다. 이번 수업은 ‘나만의 일상이 담긴 내 스타일 글쓰기’, ‘가족을 위한 나 사용 설명서 만들기’ 등으로 채워질 예정이다.

예술위 관계자는 “이번 수업은 우리 사회를 이끌어 온 역군인 ‘중장년층’이 인문예술을 통해 인생 이모작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며 “이들이 자존감을 회복하고 겪고 있는 고민을 해소하는 것은 사회 전체적으로 중요한 문제다”고 했다.

한편 특강은 인생 이모작과 도약을 꿈꾸는 중장년층을 위해 예술위가 고용부와 협력해 진행한다. 중장년 청춘문화공간 누리집에서 참가 신청.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조선의 시인
아홉번째
시집

제9 시집
조선의 시집

담양, 인향만리
죽향만리

조선의 시집

담양에서 길어 올린 아름다운 시편들의 향연

담양, 인향만리 죽향만리

“ 이 시집은 담양을 사랑하는 조선의 시인이
몸소 시가 된 담양의 현사가 아닐까. ”

이성혁(문학평론가)

시인의 말

과거가 / 미래를 향해 / 현재에 살아 있는 곳
담양은 / 말로만 듣는 것보다 / 직접 와서 보면 안다
왜 다시 오고 싶은지

조선의

농민신문 신춘문예, 기독교 신춘문예, 미선21 신춘문예 당선
송순문학상, 신석경문학상, 신성문학 대상 등 수상
시집 『빛을 소환하다』, 『꽃, 향기의 밀서』,
『꽃으로 오는 소리』, 『아직 도달하지 않은 임의 문장』 등 발간
(시꽃피다) 광주 시장작 강사
서울 성동구 평생교육원 시장작 강사
(시꽃피다) 전북지역 시장작 강사
담양문화원 시쓰기 강사

지은이 | 조선의
펴낸 곳 | 도서출판 상상인 ☎ 02-747-1367